

소설의 목적

제2회 세계문학상 당선작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

김미현 · 문학평론가

비판론의 '아내가 결혼했다'는 판정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의 판정성'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육체가 등장해서 판정자이기보다는 문학이나 삶, 인간과 직접적인 접촉 관계를 형성하려는 지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새로운 소설의 몸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소설은 흔히 기법적이거나 신장적이라는 혐의를 받거나 소설의 권위와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폄하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할 것이다. 독자가 소설을 읽는 목적은 무엇이고, 작가가 소설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 독자들은 제마만 있는 소설이 아니라 제마도 있는 소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작가는 원래 소설 자체를 포함할 어떤 권위나 존엄성에도 도전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그런 소설의 목적에 충실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2006 04 April

두 개의 키워드, 중혼(重婚)과 착구

제2회 세계문화상 당선작인 박현옥의 『아내가 결혼했다』(문이당, 2006)는 두 가지 점에서 돋보인다. 한 가지는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현재 결혼 상태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는 중혼(重婚)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일부일처제 중심의 결혼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소설 속에 적극 도입하여 이야기 전개의 중요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만교가 이미 『결혼은, 미친 짓이다』(민음사, 2000)를 통해 절대적이고 유일한 상대와의 지속적인 결혼이 지나는 불가능성이나 허구성에 대해 문제 삼은 바 있다. 그러나 『결혼은, 미친 짓이다』는 결혼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시뮬라크르로서의 결혼, 대량 복제품으로서의 결혼을 비판하려는 의도 자체가 더 크기도 했지만, 여주인공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도 옛 애인인 남주인공과 소위 불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때 결혼제도 안에서 일부일처제를 비판하는 수준에서 봉합된 면이 있다. 그리고 스포츠와 소설의 결합도 이미 박민규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한겨레신문사, 2003)에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박민규 소설에서의 야구는 삶이나 인간 본질의 알레고리이자 축소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박현옥 소설 속에서의 결혼과 축구는 이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모든’ 결혼은 미친 짓이다

박현옥은 작가의 말에서 이 소설이 “행복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한다. 그리고 소설의 본문에서 “행복에 이르는 길은 실로 간단하다.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사는 것”(102쪽)이라고 밝힌다. 문제는 이처럼 간단한 일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데에서 발생한다. 첫번째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반드시 한 명이 아니라는 것, 두번째 문제는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이 질투심이나 독점욕 없이 같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통해 작가는 사랑의 의미와 부분 혹은 가족의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

제2회 세계문학상 당선작인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문이당, 2006)는 두 가지 점에서 돋보인다. 한 가지는 제목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현재 결혼 상태인 아내가 다른 남자와 다시 결혼하는 중혼(重婚)의 이야기를 다룸으로써 일부일처제 중심의 결혼 제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축구라는 스포츠를 소설 속에 적극 도입하여 이야기 전개에 중요 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이만규의 『결혼은, 미친 것이다』

『결혼은, 미친 것이다』는 결혼 제도 자체를 거부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시뮬라크르로서의 결혼, 대량 복제품으로서의 결혼을 비판하려는 의도 자체가 더 크기도 했지만, 여주인공이 다른 남자와 결혼한 후에도 옛 애인인 남주인공과 소위 불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볼 때 결혼제도 안에서 일부일처제를 비판하는 수준에서 봉합된 면이 있다.



박민규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

박민규 소설에서의 야구는 삶이나 인간 본질의 알레고리아자 축소판으로서의 역할을 했다. 그러나 박현욱 소설 속에서의 결혼과 축구는 이들과 비슷하면서도 다르다.

형태에 대한 사회인류학적 탐사와 인간의 본성이나 심리에 대한 소설적 형상화를 병행하고 있다.

소설 속 그녀는 남녀 사이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관계여야 한다는 통념을 거부한다. 그녀는 “우리가 사랑에 대해 흔히 생각하는 것들, 우연히 만난 두 사람이 첫눈에 반해 국경과 인종과 계급을 초월해서 일생에 단 한 번뿐인 열정적인 사랑을 하면서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건 환상에 지나지 않아요.”(30쪽)라면서 ‘폴리아모리’를 주장한다. 독점욕과 질투심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다자간 사랑’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이런 ‘자유연애’는 더 이상 충격이 되지 않을 정도로 이미 현실화 혹은 일상화되고 있다. 문제는 그것이 결혼 이후, 즉 이미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발생할 때, 그리고 그 상대와의 결혼까지 연결될 때이다. “바람피우는 건 불륜에 지나지 않지만 중혼은 불법”(135쪽)인데, ‘나’와 결혼한 그녀는 새로 사랑하게 된 연하남과 결혼식까지 감행하고 ‘두 집 살림’을 차린다. 이미 ‘나’와 결혼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공론화하거나 결혼 신고를 정식으로 하지 못할 뿐, 실제적으로 아내는 두 남편과 결혼 생활을 영위한다. “머독이라는 인류학자가 그랬어. 전 세계에 있는 각기 다른 인간 사회 238곳 가운데 일부일처제를 유일한 결혼제도로 채택하고 강요하는 사회는 겨우 43곳뿐이라고”(135쪽)가 아내의 변(辯)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배우자 몰래 외도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상대를 속이고 자신을 속이는 것보다는 그냥 터놓고 인정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157쪽)가 상대방 남자의 변이다.

이처럼 황당하고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작가는 능청스럽고도 재치 있으며 설득력 있게 풀어나가고 있다. 이 점이 바로 이 소설의 특징인데, 오쟁이진 남편으로서의 자존심 문제나 “아무리 그래도…… 여기가 서구 사회도 아니고…… 엄연한 한국땅에서…… 여자가……”(66쪽)라는 사회 통념과의 갈등을 살감나면서도 처절하게 묘사함으로써 독자들의 공감

과 이해를 끌어내고 있다. 끝까지 밀어붙이는 이 작가의 개인기는 아이의 출산과 양육 문제까지 이슈화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두 남편 중 누구의 자식인지 모를 아이를 출산한 후 유전자 검사를 거부하며 자신의 아이이자 모두의 아이임을 관찰시키는 아내를 통해 두 아버지를 둔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기존의 결혼 가족 개념이 아닌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자리매김하는 데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보면 이런 비현실적 실험을 끝까지 해보려는 작가의 독심을 확인하게 된다.

소설의 결말부분에서 결국에는 이 특별하고도 이상한 가족이 사회의 시선을 무시할 수 없어 뉴질랜드로 이민가는 것으로 끝을 맺지만, 이것은 현실도피적이고 안이한 결말이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의 억압과 통념의 벽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이자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이르는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작가는 사랑과 결혼에 관한 인류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와 해석을 제시하기도 한다. 모노가미(일부일처제), 폴리기니(일부다처제), 폴리안드리(일처다부제), 시리얼 모노가미(연속 결혼, 할부 단혼) 등과 같은 다양한 결혼 형태나 폴리 패밀리와 폴리 피델리티 같은 확대 가족의 형태까지 끌어와 다자간 사랑이나 일처다부제의 역사적 혹은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할 것은 ‘어떤’ 결혼이 아니라 ‘모든’ 결혼이 미친 짓이라는 도전적인 작가의 문제의식이다. “어쩌면 문제는 일부일처제가 아니라 결혼 자체인지도 모른다. 모노가미전, 폴리가미전, 심지어 수양개나 했다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인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폴리 피델리티에서조차 결혼 생활을 통해 유토피아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뿐이다”(340쪽)라는 말에서 확인되듯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는 결혼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한다면 과연 결혼 자체가 인간에게 필요하고도 유용한 제도인가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이 제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소설에서 그려내는 일부다처제가 결혼의 ‘확장’이 아닌 ‘파괴’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도 이 대목이다. 결혼에 대해 ‘위반’이 아닌 ‘전

‘두 남자와 결혼한 아내’라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는 낭만적 사랑이나 완전한 결혼에 대한 우리의 견고한 아집을 깨부순다. 그리고 기존의 자유 연애소설이나 불륜소설에서 더 나아간 대안을 제시한다.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결혼도 이런 행복할 권리에 이바지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행복할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가장 단순한 논리를 가장 실천이 어려운 해결책으로 만드는 현실의 벽을 깨부수기 위해 이 소설은 무모하면서도 용기 있게 도전장을 내민다.

복’을 꿈꾸며, 결혼 제도의 ‘바깥’에서 결혼제도 자체를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작가의 이런 불온성과 진보성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벗어나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이라고 믿어왔던 견고한 아집들이다”라는 작가의 말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 ‘두 남자와 결혼한 아내’라는 상황 설정을 통해 작가는 낭만적 사랑이나 완전한 결혼에 대한 우리의 견고한 아집을 깨부순다. 그리고 기존의 자유 연애소설이나 불륜소설에서 더 나아간 대안을 제시한다. 인간은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결혼도 이런 행복할 권리에 이바지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행복할 권리를 포기할 것이 아니라 결혼 제도를 바꿔야 한다. 이런 가장 단순한 논리를 가장 실천이 어려운 해결책으로 만드는 현실의 벽을 깨부수기 위해 이 소설은 무모하면서도 용기 있게 도전장을 내민다. 이 작가에게는 “행복한 사람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삶”(267쪽)이기 때문이다.

황당한 결혼을 위한 당의(糖衣)로서의 축구

하지만 몸에 좋은 약이 원래 입에는 쓰다. 이처럼 위험한 소설을 그대로 드러냈을 때의 쓴맛을 걱정한 작가는 여기에 당의(糖衣)를 입힌다. 그것이 바로 축구이야기이다. 작가는 비현실적이고 황당한 연애 혹은 결혼이야기의 현실적이고도 일상적인 전개를 위해 축구이야기를 끌어온다. 소설 속 남녀 주인공과 연결된 ‘연애’ ‘결혼’ ‘부부’ ‘가족’ 이야기는 축구로부터 시작되어 축구로 끝난다. 축구와 연관된 기록이나 정보, 상황이 정확하게 주인공들의 관계나 사건과 개연성을 가지면서 제시된다.

가령 이런 식이다. ‘나’는 레알 마드리드의 팬인데, 그녀는 FC바르셀로나의 팬이다. 그런데 두 팀의 경기에서 FC바르셀로나가 졌다. “FC바르셀로나가 지지 않았다면 그녀는 우울해하지도 않았을 테고, 나는 그녀가 축구 팬이라는 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영원히 70점에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축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면 그녀가 나에게 친밀감을 느끼지도 않았을 테고 나와 단 둘만의 술자리를 마다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며 자신의 집에 가자고 말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말하자면 모든 것은 축구로부터 시작되었다.”(21쪽) 그래서 ‘새도 스트라이커’인 그녀의 매력에 빠져 ‘나’는 그녀와 결혼한다. 그러나 도중에 ‘선수 교체’가 일어나 그녀에게 새로운 상대가 생겼다. 그런데 그녀는 둘 중 하나도 포기할 수 없으니 ‘골키퍼’를 두 명 세우겠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그녀를 포기할 수 없는 ‘나’는 “골문을 텅 비워 놓아야만 계속 기용될 수 있는 골키퍼”

(199쪽)에 다름 아니다.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축구공이란 행복과 가까운 데 있는 무엇이다.”(351쪽)

문학과 문화의 접속을 토대로 한 문화형성소설은 이미 소설의 중요한 하부장르로 자리 잡았다. 박현욱 또한 등단작인 『동정 없는 세상』(문학동네, 2001)이나 두 번째 소설인 『새는』(문학동네, 2003)에서 이미 영화나 대중가요를 자신의 소설에 원용하는 문화적 감수성을 보여주었다. 에릭 로양의 영화 『동정 없는 세상』을 끌어와 ‘동정(童貞) 없는 세상은 곧 ‘동정(同情) 없는 세상이기도 하다는 성장소설적 주제를 형상화했으며, 「새는」을 비롯한 송창식 노래 10곡과 산울림의 노래 한 곡이 보너스 트랙으로 들어 있는 개인용 편집 테이프를 듣는 경험을 작품의 구성 방식으로 택하기도 했다.

소설의 목적에 충실한 소설

『아내가 결혼했다』에서는 보다 본격적이고 육체적으로 소설 속에 문화가 침투한다. 이제 더 이상 영화나 미술, 음악과 문화의 만남은 신선하지 않다. 이런 순수예술과의 상호텍스트적 단계를 넘어서 이제는 만화나 게임 같은 소위 하위문화 장르와의 교섭 양상도 활발해지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영화가 소설화되는 역방향의 경우까지 생겼다.(영화 「외출」을 소설화한 김형경의 소설 『외출』) 이제는 문화가 소설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이 문화를 모방하는 시대가 된 듯하다. 더 이상 이런 결과가 문학 입장에서 볼 때 ‘순수’ 인가 ‘잡종’ 인가, ‘확대’ 인가 ‘축소’ 인가, ‘진보’ 인가 ‘퇴보’ 인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색해지는 단계까지 온 것이다. 특히 문학과와의 연계성이 가장 약해 보이는 스포츠까지 문학 속에 진입함으로써 더 이상 문학 속 문화의 사각지대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문학은 생존 혹은 진화를 위해 문학 이외의 모든 것을 필요로 하는 시대를 맞이했는지도 모른다. 박민규의 『삼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에서 야구로 대변되었던 하위문화 장르의 주류화 현상이나 문화 서열의 전도 양상이 보다 본격화되고 있다는 신

호탄이 이 소설 속의 축구일 수 있다.

때문에 이제는 ‘무엇’을 가져왔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가져왔느냐가 논의의 초점이 되거나 그런 문학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정보가 체험을 대신하는 소설, 박물지적 지식이나 디테일이 소설의 주축이 되는 소설, 인문학적 글쓰기가 아닌 문화적 글쓰기가 중심이 되는 소설을 통해 우리는 ‘허구의 허구’, ‘하위의 하위’를 문제 삼을 수 있다. 포즈나 제스처가 아닌 노이즈나 바이러스로서의 저항이나 새로움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이 박현욱과 같은 젊은 작가들의 소설 형식에 반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플랑 바르트는 문학의 본질로 ‘변태(perversion)’를 든다. 기존의 질서나 도덕을 뒤집는 전복성을 강조한 것이다. 뒤틀거나 뒤집지 않고 이전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문학, 의심 없이 주어진 길을 가는 문학, 길들여진 언어만을 앵무새처럼 따라하는 문학의 체위는 정상일 수는 있어도 문학적이지는 않다. 이런 맥락에서 박현욱의 『아내가 결혼했다』는 ‘관능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텍스트의 관능성’을 보여주는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야한 육체가 등장해서 관능적이라기보다는 문학이나 삶, 인간과 직접적인 접속 관계를 형성하려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소설은 새로운 소설의 몸을 보여주려고 노력한다. 이런 소설은 흔히 가볍다거나 선정적이라는 혐의를 받거나 소설의 권위와 존엄성을 훼손했다고 폄하되기도 쉽다.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물어봐야 할 것이다. 독자가 소설을 읽는 목적은 무엇이고, 작가가 소설을 쓰는 목적은 무엇인지. 독자들은 재미만 있는 소설이 아니라 재미도 있는 소설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리고 작가는 원래 소설 자체를 포함한 어떤 권위나 존엄성에도 도전하는 것이 의무이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그런 소설의 목적에 충실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다. 